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인플레 둔화..미국증시 반도체·금융주 중심 상승

- 미국증시 기술주 중심 상승..나스닥 +0.90%
- 예상보다 완만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유가가 변수
- 어닝시즌 돌입, 실적 따라 엇갈린 주가 희비

### Summary

#### 미국증시 일제히 상승

7월 14일 월요일(현지시각) 미국 증시는 이날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이 예상보다 더 완만해진 가운데 근시일 내 금리 인상 전망이 악화,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일제히 상승. 주요 금융주를 필두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실적 결과와 전망에 따라 주가 희비가 엇갈림.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02% 상승한 52,508.27에 이날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38% 상승한 7,543.59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0.90% 상승한 26,107.00에 마감했고 나스닥100 지수는 1.10% 상승, 러셀2000 지수는 0.39% 상승함. 변동성지수 VIX는 3.85% 하락, 16.50에 마감.

(다우 +0.02%/ S&P500 +0.38%/ 나스닥 +0.90%/ 러셀2000 +0.39%)

#### 6월 CPI “예상보다 긍정적”..변수는 ‘유가’

이번주 주요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공개. 미 노동부는 미국의 6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에 비해 3.5% 상승해 직전 달의 전년 대비 상승률 4.2%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발표. 이는 시장 예상치 3.8%도 하회하는 수치이며 전달 대비로는 0.4% 하락해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6% 상승해 역시 직전달 기록했던 2.9%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전달에 비해서는 보험을 기록해 직전달 기록했던 0.2% 상승 대비 둔화. 종전 MOU 이후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등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6월 물가 상승률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실제 에너지 가격은 한 달간 5.7% 하락해 역시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 하락했고, 휘발유 가격은 무려 9.7% 하락을 기록.

다만 6월 지표는 이미 지나간 물가 수준에 대한 후행적 지표로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전황이 물가 흐름과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실제 이날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6월 CPI에 대해 “예상보다 긍정적이지만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함. 실제 CPI 발표 이후 채권 시장의 이 달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베팅은 크게 약화됐지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어닝시즌 진입..실적 따라 엇갈린 희비

월가 대형 금융주를 필두로 2분기 어닝시즌이 본격화됨. 골드만삭스가 증시 호조에 따른 트레이딩 수입과 대형 IPO 주관 업무로 인한 투자은행 부문 수익 급증으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이외 JP모건과 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와 웰스파고 등 모두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웃돌아 양호한 자본시장 분위기와 견조한 대출 수요 등을 확인시켜 줌. 골드만삭스는 무려 9% 급등했고 JP모건도 2.5% 상승하는 등 대형 금융주 실적 호조는 해당 종목 주가의 강세로 직접 연결됨. 다만 씨티와 웰스파고 등은 ROE 기준 실적의 질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돼 약세 마감.

IBM은 이날 2분기 실적 잠정치를 공개. 2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1% 성장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고객사들의 IT 예산 배분 문제와 달아있다고 설명. 회사는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고객사들이 자사의 매출과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대신 메모리, 스토리지, 서버 등의 하드웨어 구축에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지출했다며 이에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IBM의 서사는 여타 소프트웨어 업종에는 실적 부진 추정의 근거로 작용했으며 반대로 메모리, 스토리지 등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종에는 실적 호조 추정의 근거로 작용함.

## 특징종목

### IBM발 충격: 소프트웨어주 동반 하락

IBM(-25.21%)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분기 실적을 예고. IBM은 잠정 집계한 2분기 매출이 172억 달러, 조정 후 주당 순이익이 2.93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힘.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매출 179억달러, 주당 순이익 3.01달러를 모두 하회하는 것.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는 주주 서한을 통해 실적 부진의 원인을 고객사들의 IT 지출 관련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설명함. 고객사들이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메모리, 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확보를 위해 분기 지출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나 예상보다 더 강력한 고객사 지출 재조정이 진행됐다고 설명. 즉 고객사들이 반도체 등의 하드웨어에 예산을 할당하면서 IBM의 메인프레임, 관련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출 배정은 크게 줄었다는 것. 기업들의 IT 지출에서 재량적 IT 지출이 줄어들고 AI 인프라 확보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비단 IBM에게만 실적 부진 요인은 아닐 것으로 보임. IBM은 이날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어주 전반이 동반 약세. 최근 재무 부담 등의 이슈로 지속 하락 중인 오라클(-2.74%)이 전거래일 6%대 하락에 이어 추가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1.55%)와 세일스포스(-2.14%), 서비스나우(-5.76%), 어도비(-4.26%), 인튜이트(-2.53%), 오토데스크(-2.97%), 워크데이(-3.49%) 등.

다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AI 고도화와 맞물려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 관련주는 오히려 강세. 클라우드스트라이크(+12.14%)가 급등하며 IBM 시가총액을 추월했고, 팰로앨토 네트웍스(+6.84%), 포티넷(+3.87%), 넷애플

(+6.48%), 팔란티어 테크놀로지(+2.83%), 옥타(+10.81%), 지스케일러(+7.24%) 등이 강하게 상승.

### IBM발 충격의 역설: 반도체 등 하드웨어주 상승

한편 IBM의 실적 부진 예고는 역설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주에는 단단한 반등의 근거가 됨. AI 자본지출의 수혜가 메모리와 반도체 공급 업체에 집중되고 있음을 IBM의 부진한 실적으로 확인한 셈인데, 이날 시트리니 리서치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시트리니는 중국의 공급 확대를 감안하더라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데이터센터와 AI 분야 메모리 수요 전망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물리 AI 수요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봄. 이에 반도체주 전반이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4% 상승했고 자사의 H200 AI 칩이 중국과 홍콩으로 소량 출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엔비디아(+4.06%)도 비교적 큰 폭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92%), 인텔(+4.50%), AMD(+2.57%), 샌디스크(+5.01%), 웨스턴디지털(+1.40%), 시게이트 테크놀로지(+2.05%), 램 리서치(+4.90%), KLA(+3.65%),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3.53%), 테라다인(+3.55%) 등 대부분 관련주가 상승.

이외 델 테크놀로지스(+7.13%),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4.91%) 등 서버 제조사 주가도 강세. SK하이닉스 ADR은 이날 27.29% 급등한 193.92달러에 마감,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 전일 5.2% 상승으로 194만 1천원에 마감한 본주와의 괴리는 45% 이상으로 확대(ADR이 본주 대비 프리미엄을 45% 이상 받고 있음)됨. 이날 SK하이닉스 ADR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 거래와 레버리지 ETF 거래가 본격 개시된 가운데 바클레이즈는 SK하이닉스 ADR의 목표가를 330달러로 제시.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금융주 실적: 자본시장 호황 최대 수혜

개장 전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잇달아 발표. 대체로 2분기 뉴욕증시가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친 덕에 트레이딩 부문 수입이 크게 늘었고 초대형 기업공개(IPO)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투자은행 부문 실적 호조로 이어짐.

JP모건(+2.50%)의 2분기 순이익이 212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41% 증가. 지분 투자 등의 일회성 이익을 제외해도 순익 상승률은 13%에 달해. 투자은행 부문도 2분기 수입이 39억 달러로 1년 사이 45% 급증. AI 투자 붐이 지속되고 있어 주식 및 채권 발행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

골드만삭스(+9.00%)도 트레이딩 부문과 투자은행 부문 수입 증가에 힘입어 2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 2분기 주당 순이익은 20.98달러를 기록해 1년 전의 두 배 수준을 기록.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입이 34억 달러로 1년 사이 55% 증가했고, 주식 부문 트레이딩 수입은 72%, 채권/통화/상품(FICC) 부문 트레이딩 수입도 32% 각각 급증. 스페이스X 기업공개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본조달 거래에서 주관사를 맡은 것도 순익 성장에 크게 기여.

씨티그룹(-5.29%)과 웰스파고(-2.71%)는 비용 증가와 ROE 정체 등의 이슈로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에도 하락했지만뱅크오브아메리카(+1.88%)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외 모건스탠리(+2.98%)도 시장 대비 상승폭을 확대하며 마감.

### 이외 특징주

전 거래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애플(-0.75%)은 이날 키뱅크의 투자의견 축소에 약세 전환. 키뱅크는 아이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어 2026년 회계 연도 예상 순이익 기준 PER 약 36배에 달하는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애플의 투자의견을 기존 '섹터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하드웨어 판매 둔화는 결국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등 서비스 부문의 매출 성장까지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목표주가 역시 월요일 종가 대비 21% 낮은 250달러로 제시.

스페이스X(-2.20%)는 이르면 오는 16일 대형 스타십 로켓 시험 비행을 위한 발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짐. 모건스탠리와 에버코어 ISI 등이 각각 '매수' 의견과 함께 300달러, 230달러의 목표주가를 제시. 이들은 스페이스X의 우주 인프라와 AI, 스타링크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다만 주가는 이어지는 하락으로 상장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경신.

루시드(-16.15%)는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전기차 전문 매체의 보도 이후 폭락했지만 회사 측에서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해 낙폭은 장 중 저점 대비 절반 가량으로 축소.

우버 테크놀로지스(-2.94%)는 독일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앞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주당 인수가 33유로 대비 더 높아진 인수가, 주당 36유로를 제시했다는 소식에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로 하락.

###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 미국-이란 공방 지속..국제유가 추가 상승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전일 9% 이상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며 밝혔던 사실상의 통행료 징수 계획을 철회했지만 유가는 상승세를 유지. 이란은 자국 주요 해안 도시들이 잇따라 미국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역내 도발이 계속되는 한 이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가 단 한 방울도 수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이와 함께 미군 기지가 위치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단행. 미 중부 사령부는 동부시각 14일 오후 3시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용 선박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 또 동부시각 14일 오후 4시,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연안 지역과 항만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힘.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54% 상승한 배럴당 79.34달러

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9월물도 2.46% 상승한 배럴당 84.73달러에 거래를 마칩.

국제 금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다소 완화되자 국제 금리 하락과 함께 반등. 무이자 자산인 금은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 상대 매력이 감소, 금리가 하락하면 상대 매력이 상승함.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 산하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1.6% 상승한 트로이 온스 당 4,069달러대를 기록. 은 선물 가격도 1.5%이상 상승, 온스당 60달러 회복을 목전에 둠.

### 완만한 물가 상승..국채금리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예상을 하회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단기물을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가격 상승). 지난달 유가 급락으로 에너지 가격이 낮아진 것이 물가 지표 상승률 둔화의 직접적 이유가 된만큼 이란 정세와 관련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국제유가는 물가 지표 안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 다만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도 다소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 국채 금리는 유가 상승에도 낙폭을 축소했을 뿐 하락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음. 6월 CPI에 대해 과도하게 긍정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도 하락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날의 금리 하락을 돌리지는 못함.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CPI 발표 직후 10bp 이상 급락했지만 낙폭을 줄여 8.8bp 하락한 4.1934%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3.4bp 하락한 4.5894%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0.1bp 하락에 그쳐 5.1041%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전장 40% 초반대에서 10% 중반대로 크게 낮춰 반영. 9월 인상 가능성도 70% 중반대에서 50% 중반대로 하락.

### 달러 가치 사흘만에 하락

미국 달러화 가치는 사흘만에 하락. 역시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 다만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돼 낙폭은 적잖이 축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CPI 발표 이후 장 중 100.587선까지 하락했지만 낙폭을 축소, 전장 대비 0.32% 하락한 100.914에 마감.

전일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약 두 달만에 장 중 1,490원을 하회하기도 했던 달러-원 환율은 10.4원 하락한 1,493.0원에 마감했으며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는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90원)를 감안시 전일 주간 거래 종가 대비 3.20원 하락한 1,488.90원에 마감.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